

말씀 : 사도행전 28:1-31

요절 : 사도행전 28:30,31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까지 전파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개척을 마친 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행19:21)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이 비전은 바울 개인의 인간적인 야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으로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사도 바울이 멜리테 섬에서 원주민들을 돕는 내용입니다. 후반부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붙잡은 이스라엘의 소망과 로마 셋집에서도 충성스런 일대일 역사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한 사도 바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믿음과 열정을 배워서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멜리테 섬에서(1-10)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에 파선(破船)했으나 가까스로 한 섬에 도착하여 구원(救援)을 얻었습니다. 그 섬은 멜리테라 하였습니다.(1). 멜리테는 오늘날 몰타(Malta)로서 시실리 남쪽 98km 지점에 위치한 ‘피난처’란 뜻을 가지고 있는 섬입니다. 섬에 상륙한 날은 비가 오고 날이 차서 겨우 살아남은 그들에게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불을 피우고 몸을 녹이도록 해주었습니다. 당시 이런 경우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불까지 피워서 영접한 것은 정말 특별한 호의(好意)를 베푼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 불에 넣었을 때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놀라서 서로 말하기를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였습니다(4). 그들은 인과응보(因果應報)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은 필시 살인죄가 있기 때문이요. 신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이 그 뱀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6:17,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소문이 온 섬에 퍼져서 그 섬의 추장(酋長)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영접하여 사흘이나 머물게 하였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낮게 하매”(8)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자 그렇게 열이 펴져서 극심한 통증과 설사로 고통 받던 보블리오의 부친이 말끔히 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소문을 들은 그 섬의 다른

병든 자들도 다 나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9) 바울을 통해 주께서 행하신 능력의 역사로 바울 일행은 융숭(隆崇)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항이 재개되는 2월까지 그 곳에 머무르며 떠날 때에 276명이 쓸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광풍으로 많은 것을 잃었는데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다시 채워 주셨습니다.

바울일행이 멜리테 섬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무 계획도 없었고, 어쩌다 보니 광풍에 떠밀려 멜리테 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두고 계셨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는 이 소외된 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선한 뜻 가운데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너무나 오묘(奧妙)합니다. 광풍(狂風)이 불어서 배가 아프리카 쪽으로 떠밀려 간 것도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쪽으로 되돌아 온 것도 아닙니다. 로마에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광풍 때문에 더 빨리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善)을 이루셨습니다. 광풍조차도 쓰셨습니다. 독사의 공격도 선으로 바꾸셔서 멜리테 원주민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II. 로마 개척역사(11-31)

①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 쇠사슬에 매인 바울(11-29)

석 달 후 곧 항해가 시작되는 2월이 되자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드디어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11) 이 배가 시실리 섬의 수도이자 아르키메데스의 고향인 수라구사에 집을 내리기 위해 사흘간 정박하였습니다. 거기서 레기온에 이르고 이튿날 이탈리아 본토(本土)인 보디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작은 샘’이란 뜻을 가진 이 항(港)은 오늘날 포추올리(Pozzuoli)라고 부르는 나폴리 만에 위치한 항구(港口)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수송해온 곡물(穀物)들을 내려 내륙으로 운반하던 곳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까지 이탈리아 반도에서 떨어진 섬들의 항구에 정박하였지만 마침내 이탈리아 본토 보디올에 도착함으로 그 긴 항해를 끝내고 도보(徒步)로 로마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까지는 220km로 건장한 장년이 아피아가도(Via Appia Antica)를 통해 5일이면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보디올에 이르렀을 때 그곳 형제들이 바울을 만나 이레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로마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14b) 이는 사도 바울의 로마로 향하는 감회(感懷)가 서린 감격적인 표현입니다. ‘야! 드디어, 마침내, 정말 로마로 가게 되었구나!’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이곳 로마로 오기 위해 많은 환난과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유대인의 핍박과 40인의 테러 특공대로 인해 여러 번 죽을 번 하였고 종교지도자들과 총독들에게 심문당하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파선하여 죽을 번 하였으며 또 독사에 물려 죽을 번 하였습니다.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정말 천신만고(千辛萬苦),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드디어 로마로 향하게 되었으니 그 감격이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 일행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습니다(15). 로마에서 65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압비오 광장(Forum of Appius)은 전쟁에 승리한 로마 장군의 영광스러운 개선(凱旋)을 열렬히 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광장(廣場)이었습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로마에서 50km 떨어진 곳 인데 세 개의 여관(모텔)이라는 뜻으로 개선 군사들이 로마에 입성하기 전에 쉴 수 있도록 배려한 숙소(宿所)였습니다. 바울은 인

간적으로 볼 때 석사술에 매여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죄수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도 바울은 전 세계 곳곳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영광스럽게 돌아오는 영적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세계 최대의 격전지 로마를 향해 입성(入城)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형제들은 바울의 로마 입성을 대대적으로 뜨겁게 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나와 뜨겁게 영접해주는 로마 성도들을 본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15b) 무엇보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이로다.”(롬1:8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깊이 감사했습니다. 죄악의 도시인 로마에서 자립적으로 믿음 중심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맞이하고자 이렇게 먼 거리를 온 그들의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낯선 곳에 갈 때 그곳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영접해줄 때 우리 마음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마치 우리 목자님들이 캠퍼스에 올라갔을 때 그 가운데 믿음 중심을 지키는 형제자매들이 반갑게 맞이해주고 함께 교제(交際)할 때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됩니까? 이처럼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온 바울에게 낯선 이방 땅에서 동일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형제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죽음의 전투에서 살아남은 동료 전우를 극적으로 만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죄악 된 세상에서 나 혼자만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힘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천국까지 이어지는 동일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곁에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상처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남는 것은 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있을 때 서로 잘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귀한 동역자들로 인해 서로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 이 죄악 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까? 바울 일행이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습니다(16). 이는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攝理)였습니다. 아마 베스도 총독의 호의적인 상소문이나 백부장 율리오의 호의적인 보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 선교라는 위대한 사명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고 넘어서 로마까지 왔지만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일종의 가택(家宅)연금 상태에 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비전과 사명은 위대하데 현실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에서는 다른 죄수들 처럼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미결수(未決囚)이지만 아무 죄가 없고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 때까지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한 군인이 그를 지키고 있었으나, 바울이 원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사흘 후에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하여 자신을 변명하고 오해를 풀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율법을 배척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사실 로마인은 바울을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습니다(18).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바울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지 자기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19).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온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0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 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바울이 로마에 온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죄사슬에 매인바 되어서 로마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이기에 죄사슬에 매인바 되어서 까지 로마에 온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鶴首苦待)하였습니다. 이 소망은 그들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처할수록 더욱 불타올랐고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절정(絶頂)에 달하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에 위로와 힘을 얻고 어떤 역경과 시련도 견디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오면 국가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 등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경 바다메오도,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를 갈망(渴望)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약속대로 예수님을 인류의 메시아로 보내 주셨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유대의 높은 사람들 앞에서 이 소망을 증언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두신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하여 무지(無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신 이스라엘의 소망에는 무지한 채 유다이즘과 배타주의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에는 무관심한 채 세속적인 작은 욕심들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참 소망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고 인류의 소망이 되십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낙원을 상실하고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에덴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약속의 주인공, 소망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되심으로 잠시 발꿈치를 상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復活)하셨습니다. 이로써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시고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다가 세상 끝 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산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한계(限界)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와 권세와 명예를 얻고 큰소리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 버립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돈이 없거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죄와 죄로 인한 죽음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고 인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라도 기필코 로마에 온 것입니다. 이 소원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두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 인류의 구원을 향한 거룩한 소망에 불탔습니다.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리스도, 미쳤어도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소망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인데, 그 절반이 넘는 13장부터 28장까지, 총 16장은 사도바울의 열정적인 전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 온갖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인바 된 바울이 불쌍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쇠사슬은 세상의 어떤 꽃다발이나 훈장보다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매임을 통해서 복음역사의 진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1:12,13절에서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당시에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군인들이 자기 팔에 쇠사슬을 매고 다른 죄수들은 죄수의 손에 댔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을 맡은 군인들은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군인들은 일대일을 하기 싫어도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에는 복음을 듣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이에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로마 복음화의 지혜요 전략(戰略)이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롬 11:33,34)”

23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留宿)하는 집에 많이 왔습니다. 바울은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강론했습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23b)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평화와 정의, 그리고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14:17)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에서 여러 가지 인간 조건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 얻고 성취함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인간 조건을 다 얻고도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힘써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믿음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재물이나 소유를 얻어야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얻는 자의 심령에 임합니다. 그 때 생명과 빛, 자유와 평안,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심령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모세가 예언하였고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메시아,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깨우치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심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습니다(24,25a). 바울은 간절함으로 증언 하였지만 그들은 호기심만 있었을 뿐 소원이 없어 시큰둥하였습니다. 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로마까지 왔는데 다 떠나는 것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바울은 그들의 믿지 않는 반응을 보며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25b).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 줄까 함이라 하였으니”(26,27절) 바울은 그들의 완고(頑固)함을 보고 어떤 방향을 잡았습니까?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28)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바울의 복음사역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이방인에게로 돌리십니다. 이방 사람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됩니다.(행1:8) 성령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만민구속 사역은 결코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30-31절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으로 바울이 이 소망 때문에 로마의 셋집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②로마의 셋집에서(30-31)

바울은 매인 몸으로 어떻게 로마 복음 역사를 감당하였습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30,31) 가이사에게 상소한 죄수는 2년을 기다려야 재심을 받을 수 있었고 고소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무죄석방 되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바울의 2년간의 로마생활은 셋집에서의 복음전파입니다. 이 집은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동역자들이 세를 얻은 것입니다.(빌 4:18) 사도 바울이 엄청난 로마 선교의 비전 가운데 왔지만 그가 한 일은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셋집에서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그는 로마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왔지만 재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한 복음 사역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때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4편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입니다. 저자 누가는 옥중 생활 2년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요약(要約)했습니다.

첫째,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습니다. “영접한다.”(Welcome)는 것은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도 영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처한 형편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죄수로서 쇠고랑을 차고 있고, 돈도 없고, 환경은 황폐합니다. 이런 그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연민과 슬픔과 피해의식에 빠져 신음하거나 자기를 고소한 동족 유대인들과 로마당국에 대한 비난과 불평이 그 마음에 가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쓴 뿌리와 복수심으로 가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함박 웃음(big smile)과 기쁜 마음(joyful heart)과 큰 애정(great affection)을 가지고 다 영접했습니다.

과거 바울은 율법적인 바리새인으로서 매우 완고(頑固)하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한 것은 예수님께서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도 다른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무도 바울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딤후1:13) 그는 정죄를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풍성히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셨으며, 심지어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심령으로부터 배워 어떤 사람이든지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군위대에 속하여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인을 영접했습니다. 보통 죄수들은 간수를 두려워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간수들에 대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양으로 보았습니다. 4시간 동안 서로 묶여 있는 동안 바울은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영접하고 들어주고 그들의 고뇌를 이해하고 그들과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영접하였을 때 온 시위대(侍衛隊) 안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는 로마제국 복음화의 씨가 되었습니다.

둘째,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주된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막1:15).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눅9:2,6).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행1:3).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이곳에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전까지는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already, but not yet).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 있게 희생하며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마음에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네로가 황제인 로마제국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서 죄수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를 부끄러워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롬1:16). 이 확신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록 로마 셋집에 갇힌 신세이지만 분명한 하나님나라의 소망과 고난에 대한 자세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큰 기쁨과 깊은 평강을 누리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일대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때 결코 어려움과 한계적인 조건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복음화의 위대한 비전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감옥 셋집에서 찾아오는 한 사람 한사람을 일대일로 섬긴 복음전파 사역은 거대한 로마 제국에 비해 있으나 마나 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는 위대(偉大)한 역사(歷史)의 시작이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일대일 역사가 로마 선교의 기초(基礎)가 되었고 그의 믿음과 비전대로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大帝)가 밀라노 칙령(Edict of Milan-신앙의 자유와 그리스도교의 권리 보장을 발표한 포고령)을 발표함으로써 기독교가 공인(公認)되었습니다. 그리고 AD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국교(國敎)로 선포(宣布)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럽 전체가 기독교(基督敎) 국가가 되고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복음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전파는 그 동안 수많은 박해와 방해공작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뚫고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갔고 마침내 로마에까지 상륙했습니다. 그 어떤 방해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복음전파의 사역을 막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온갖 박해는 복음의 증인들이 땅 끝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가속페달의 역할(役割)을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UBF와 광주 7부는 내적, 외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비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복음사역을 이끌고 계십니다. 따라서 복음사역은 희망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 된 교회는 황무지(荒蕪地)에서 장미꽃을 계속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사역의 계승자(繼承者)가 바로 오늘 우리들(나)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은 계속해서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사역의 주체인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의 사역이 계속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1:8절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스케일이 큼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끝인 28장은 로마의 셋집에서 바울이 일대일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세계선교는 셋집 1:1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일대일은 겨자씨 한 알처럼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과 폭발력이 있습니다. 일대일을 통해서 각 사람의 마음에 조용한 혁명(革命)이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 사탄의 권세가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建設)됩니다. 한 팀 한 팀의 일대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일대일은 양을 살리고 목자를 살립니다. 우리가 항상 거룩한 일대일 전투(戰鬪)를 힘써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일대일 전투를 통해 새로운 역사(歷史)를 창조(創造)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멘토 학원 1:1, 센터 홀 1:1, 바이블 하우스 1:1, 직장 1:1, 가정 1:1 등)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4) 아멘!口

결론적으로 사도행전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더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歷史)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역사가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복음에 대한 열정(熱情)으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언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저희를 통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도행전 29장 역사에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